

LG이노텍, 자동차부품 해외공략 박차

멕시코 전장부품 공장 8월 가동 ... ABS·EPS모터 생산 및 공급 강화

LG이노텍(대표 이용범)은 멕시코에서 차량용 전기·전자장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이노텍은 6월26일(현지시간) 멕시코 Queretaro의 San Juan Del Rio)에 약 3만4000㎡ 부지를 확보하고 전장부품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약 600명이 근무하는 멕시코공장에서는 변속, 제동, 조향 모터 등 자동차의 주행 성능과 안정성, 편의성에 직결된 핵심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8월부터 듀얼클러치변속기용 모터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와 전자식 조향장치(EPS) 모터, 카메라모듈, LED(Light Emitting Diode)램프 모듈 등 스마트자동차 및 첨단 운전자 지

원 시스템용 부품 등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멕시코공장은 2016년 차량용 모터 생산 능력이 76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Toyota, Volkswagen, Audi 등 완성차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멕시코에서 신속한 고객 대응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공장은 생산, 품질관리, 물류시스템을 일괄 구축하고 부품 정밀 측정실과 신뢰성 검증실, 출하 검사실 등 인프라를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LG이노텍은 2007년 독자 기술로 개발한 ABS·EPS 모터를 시작으로 차량 전장부품 시장을 공략해 2013년 1월 차량용 모터 누적판매 3000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10년에 걸친 연구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차량 전장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설정했다”며 “멕시코공장을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26>